

등한시되고 있는 부담: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



대한민국 사회는 대체로 코로나19와 코로나19가 안겨주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을 수용했습니다.

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이나 질병, 죽음 외에도 꼭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. 코로나19는 **의료체계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**과 생산연령 해당하는 개인, 가족, 기업의 **간접적인 생산성 손실**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.

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지우는 경제적 부담은 매년 약 3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

약 36조 원(연간)

최소:
약 7조 원
(연간)

최대:
약 122조 원
(연간)

이 수치는 **대한민국 연간 GDP의 약 1.6%**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.



취약 계층¹

노령층 및 동반질환이 있는 생산연령 성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은 **연간 최소 18조 원(대한민국 GDP의 약 0.8%)**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합니다.

노령 인구는 확진자 중 12% 정도를 차지할 뿐이지만 **코로나19 입원 환자의 40%**가 노령 인구입니다.²



핵심 근로자 및 업종에 미치는 영향

다음의 세 가지 핵심 업종은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중대한 간접적 영향(예: 생산성 손실)을 받습니다.



의료

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응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방어선입니다.

의료 업계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됨으로써 연간 최소 **1조 원**의 경제적 부담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.

그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생산성 손실은 의료 서비스의 **품질 저하와 안전성 악화**로 이어집니다.



물류

코로나19는 약 114조 원 규모에 달하는 물류 분야에 계속해서 **막대한 인력 부족 사태**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³

이로 인해 **인플레이션**이 심화되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습니다.



여행/관광

여행과 관광 산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침체를 맞은 업종입니다. 여행객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찾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**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의 부재**는 경제 회복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.



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 지속적이며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막대합니다.

이러한 부담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1. 취약 계층: 만 60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인구.
2. 입원 환자의 연령 분포를 기반으로 계산함. 코로나19 또는 유사한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음. HIRA 및 NHIS,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(전국 건강 보험 통계 연보). 2020
3. 한국 통계청. 운송 설문조사. 한국 통계청. (kostat.go.kr).
4. 본 문서에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수치는 A Neglected Burden: The Ongoing Economic Costs of COVID-19 in Australia, Taiwan, South Korea, Singapore, and Hong Kong (코로나19가 호주, 대만, 대한민국, 싱가포르, 홍콩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영향) 보고서에서 발췌함. 2023년 5월 5일.